

韓·中·日の『正法華經』과『校正別錄』

최연주*
yjchoi@deu.ac.kr

<目次>

- | | |
|---------------------|-------------------|
| 1. 序論 | 3. 韓·中·日の『正法華經』對校 |
| 2. 『校正別錄』의 『正法華經』校勘 | 4. 結論 |

主題語: 韓國(Korea), 日本(Japan), 中國(China), 正法華經(Saddharmapu Sutra), 高麗大藏經(Tripitaka Koreana), 大正新修大藏經(Taisyō shinsyūdaizokuyō), 永樂北藏(Yeonglāk bukjang),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Koryōkukshinjodaechangkyochongbyollock)

1. 序論

20세기 초 일본에서 간행된 『大正新修大藏經』은 불교 경전을 기초로 한 교리와 사상 등 연구에 많이 활용되는 텍스트 중 하나이다. 이전에 간행된 대장경과 달리 현대적 학문체계 속에서 그 체계가 정연하고, 분량이 가장 많고 교정이 엄밀하다는 점¹⁾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대정신수대장경』이 세계 최고의 대장경이라는 위상을 정립하게 된 것은 일본 불교의 교학적 발전과 더불어 학문적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한편 경남 합천 해인사에 봉안된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이하 『고려대장경』)은 세계 유일의 定本대장경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려대장경』이 이러한 권위와 가치를 지니게 된 배경은 당시 교감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이하 『교정별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려대장경』彫成 당시 學僧·儒佛學知識人 등이 참여하여 주요 경전의 교감에 필요한 諸本을 토대로 집단 토의와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내용을 반영하였을 것이다. 이 때 國本宋本丹本²⁾ 등을 상호 대교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五敎都僧統인 開泰寺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1) 미즈노 고젠 지음, 이미령 옮김(1996)『경전의 성립과 전개』시공사, pp.196-197

2) 國本은 11세기 초에 고려에서 조성한 부인사장 『고려대장경』(소위 초조대장경)을 지칭하며, 宋本은 10세기 宋나라에서 조성한 『촉판대장경』 또는 『개보촉판대장경』을, 丹本은 11세기 遼나라에서 조성한 『거란대장경』을 각각 의미한다.

승려 守其가 정리 편찬한 것이 『교정별록』이다. 조성 당시까지 존재한 각 本의 오류와 수정 및 정정 등 차이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國本宋本丹本이 거의 소실된 현 상황에서 각 本의 片鱗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고려대장경』이 定本대장경으로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엄격한 校勘과 내용 對校 등의 절차와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교정별록』은 당시 동아시아에 산재한 각 대장경 수록 경전의 대교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현존하는 최고의 교감본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서지학과 한국 불교사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었다. 『교정별록』 각 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과 국본송본단본 등의 교감을 통한 개별 경전의 대교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특히 『교정별록』 각 권의 내용에 있어서 補足, 代替, 削除, 문장의 前後倒錯, 重寫, 重重寫, 錯重寫, 권수의 相異, 내용의 錯亂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졌다. 여기에 경전의 진위여부, 逸失, 重出, 函次移動, 역자의 誤謬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전체 권의 구성 체제와 목차 구성과 편제, 역사적 의의 등을 다루었다.³⁾ 한편 『교정별록』과 『고려대장경』 卷內 교감기 일부를 상호 비교해 본 결과 두 本의 교감기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래서 수기를 비롯한 교감자들이 문장을 대조하여 잘 못된 부분은 보완하고 그 첨삭의 근거를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⁴⁾ 이는 교감 내용을 다시 점검하여 그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증좌로 이해되어, 교감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와 還流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론된다.

『고려대장경』의 교감 과정 및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교정별록』 全卷에 대한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나, 본고에서는 『교정별록』 권1의 교감 내용과 관련 경전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권1에는 『決定毘尼經』, 『須摩提經』, 『大集經』, 『大集經』제59권, 『般若三昧經』, 『正法華經』의 교감 내용이나 대조한 경전 원문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정법화경』을 중심으로 경전의 성격과 불교사적 의미와 교감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고려대장경』에 수록된 『정법화경』과 『교정별록』에 수록된 宋本내용을 대조해 五教都僧統 守其 등 교감자에 의해 어떤 부분을 수정·보완되었는지 대교해 볼 수 있다.

본고는 각 本과의 상호 대조를 거쳐 相異點과 교감 내용을 파악하여 『교정별록』을 다양하게 이해하고, 한·중·일 각 대장경과 연관성을 상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고려대장경』과

3) 오용섭(1986)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研究」 『서지학연구』 창간호; 강순애(1994)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의 분석을 통해 본 초조 및 재조대장경의 변용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7; 배상현(1997)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과 守其 『민족문화논총』 17; 오용섭(1999) 「校正別錄의 完成과 入藏에 대한 考察」 『서지학연구』 18; 강순애(2000) 「高麗大藏經校正別錄의 學術的 意義」 『서지학연구』 20; 김운곤(2003) 「고려 ‘國本’ 대장경의 혁신과 그 배경」 『민족문화논총』 27; 채상식(2013)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의 편찬과 자료적 가치 『한국민족문화』 46; 최연주(2013) 「刻成人을 통해 본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彫成」 『동아시아불교문화』 15

4) 최연주(2013) 위의 논문 참조.

『永樂北藏』, 그리고 『대정신수대장경』에 수록된 『정법화경』을 비교해 그 차이점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고려대장경』에서 訂定된 내용이 『대정신수대장경』 등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교정별록』에서 다룬 불교경전과의 현재 한·중·일에서 각각 간행된 다양한 경전을 대조와 비교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고에서 검토한 일부 내용은 추후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교정별록』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분석을 위해 여러 연구자의 많은 叱正을 바란다.⁵⁾

2. 『校正別錄』의 『正法華經』校勘

동아시아 각 국가 간의 교류 추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는 대장경 교류라 할 수 있다. 동아시아 한중일 삼국은 주요 시기마다 대장경 교류를 통해 정치, 문화 등 諸 분야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다. 교류의 핵심이 되었던 대장경은 여러 종이 있다. 최초의 목판본인 송의 『개보칙판대장경』, 부인사장 『고려대장경』 및 거란대장경이 각각 고려와 요나라에 의해 조성되었으나 대부분 소실되었다. 13세기 중엽 『고려대장경』이 조성된 이후 원나라와 명나라, 그리고 일본에 의해 대장경이 계속 조성되었으나 크게 활용되지 못하였다. 근현대 대장경의 정본이 『고려대장경』이라는데 이론이 없다. 중세와 근세를 거치면서 대장경 교류 뿐 아니라 불교 개별 경전도 다양하게 교류하였는데, 『정법화경』도 중국에서 漢譯된 이후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전래되었다.

『법화경』은 어떠한 경전인가. 『법화경』의 원제목은 『Saddharma pundarika sutra』이다. Saddharma는 바른 법(正法, 진리), pundarika는 백련 꽃, sutra는 經이란 뜻으로 백련 꽃과 같이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된다. 『법화경』의 성립 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3기로 나눈다. 제1기는 기원 후 50년경, 제2기는 100년경, 제3기는 150년경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다. 한편에서는 성립의 상한을 기원 40년으로 추정하는데, 그것은 『법화경』 신해품의 내용 중에 금을 하여 이자를 얻고, 또 부호에 그치지 않고 국왕 등을 畏怖로써 몰아내 자본가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것은 화폐경제가 대단히 진전된 시대, 즉 웨마 카드피세스(37~

5) 지난 2014년 11월 1일 일본 鹿兒島國際大學에서 개최된 한국일본근대학회 제 30회 국제학술대회 ‘朝鮮半島と鹿兒島の文化・歴史’에서 필자가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と韓中日『正法華經』の對校』란 논문으로 발표한 직후 토론자이신 牧野英二교수(日本 法政大)께서 中村 元의 저서인 『法華經成立史』를 바탕으로 『법화경』의 성립 및 불교사상사적 관점에서 『정법화경』의 의미를 교차 검토해 논지를 전개해야 한다는 요지로 敎示한 바 있다. 『정법화경』이 갖는 사상사적 의의에 대해 高見을 주신 牧野英二교수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치세의 시대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편 법화경 축루품 제22(묘법에 의한)까지의 성립을 40~220년으로 산정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불탑의 건립 추이를 바탕으로 한다. 즉 서북 인도 및 힌두스탄에 있는 다수의 불탑은 주로 바수데바왕(202~229)시대에 건립되었는데, 이 시기 불탑의 건립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그 이후에 그 풍조가 급격히 쇠퇴하였다. 그래서 불탑의 건립 추이와 그 사실에 기초하여 『법화경』의 성립시기를 유추한 것으로 본다. 아무튼 『법화경』이 인도에서 인정된 것은 굽타왕조의 시조인 찬드라굽타(Candra gupta)의 즉위가 320년으로 그 이후로 추정하고 있다.⁶⁾

『법화경』은 竺法護가 西晉시대였던 286년에 漢譯한 『正法華經』 10권, 鳩摩羅什이 406년에 漢譯한 『妙法蓮華經』 7권, 隋나라의 闍那崛多 및 笈다가 601년 漢譯한 『添品妙法蓮華經』 7권 등 세 종류가 현존한다. 『첨품묘법연화경』 7권은 『묘법연화경』을 補正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법화경』이라는 함은 鳩摩羅什의 『묘법연화경』 7권을 가리킨다. 『정법화경』은 『법화경』의 한 종류로 총 10권이며, 『方等正法華經』으로도 불린다. 『정법화경』 10권은 第1本으로서 漢譯 3本중에서 가장 먼저 번역되고 매우 상세한 번역본으로 비교적 잘 다듬어진 편이지만 읽기에 어렵다⁸⁾고 한 것에서 『법화경』은 이를 바탕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鳩摩羅什의 『법화경』이 세상에 나온 이후 중국에서 점차 전파되었고, 陳那에 이르러 『법화경』을 근거하여 天台宗이 성립되었다. 『법화경』의 유포 연대에 대해서는 弘治 7년(405)설과 8년설이 있으나, 430년대에 이미 『법화경』에 대한 註釋書가 나오기 시작한 것을 보면 아마도 430년경으로 짐작한다. 『법화경』의 유포 연대가 5세기경이면, 『정법화경』은 286년에 漢譯되었으므로 3세기부터 유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법화경』은 티벳譯, 위구르어譯, 西夏語譯, 蒙古語譯, 滿洲語譯 등으로 번역 유포된 것으로 많은 국가와 민족들에게 애호되었다. 『법화경』이 크게 유포된 시기는 天台智顗(538~597)大師가 ‘法華三昧’를 닦아서 크게 깨닫고 天台山에 들어가 天台敎觀을 세우므로 敎勢를 떨친 때라고 한다. 한편 『법화경』이 한반도로 유입된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元曉大師의 『法華經宗要』,⁹⁾ 『法華經要約』 등 7세기경에 나온

6) 이상의 내용은 다음 논고를 참조하였다. 金岡秀友 편·안중철 옮김(1992) 『대승불교총설』 불교시대사, pp.21-40 ; 中村 元 편·박희준 옮김(1993) 『불교경전 산책』 민족사, pp.105-119 ; 塚本啓祥·자이정수 역(2010) 『법화경의 성립과 배경』 운주사, pp.35-37

7) 渡辺照宏 저, 지성 역(2005) 『경 이야기』 우리출판사, pp.221-222

8)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불교연구실 편, 남현옥 옮김(1993) 『중국불교와 불교문화』 우리출판사, p.251

9) 원효의 저서 중 ‘중요’라는 제목의 저서는 17종이며, 현재 그 전문이 남아 전하는 것만도 다섯 가지가 되는데, 『법화경중요』는 그 중 하나이다. 1권으로 교장목록인 『新編諸宗教藏總錄』 등에 이름이 보이지만 국내에서는 자취를 감추었고, 일본 人和寺에 간직되어 있다. 대략의 내용은 구마라집의 『묘법연화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섯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첫째 大意를 서술하고, 둘째 經宗을 분별하며, 셋째 註用을 밝히고, 넷째 題名을 풀이하며, 다섯째 敎攝을 드러내고, 여섯째 경문의 뜻을 해석하는 것으로

최초의 註釋書로 전해지고 있다¹⁰⁾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7세기 이전에 유입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7세기 후반에 고구려에서 『법화경』을 宗으로 삼고 익힌 승려가 있었는데, 고구려 영양왕 6년(594)에 승려 惠慈가 일본으로 건너가 聖德太子의 스승이 되어 그에게 불교경전을 강의하였다. 강의한 경전 중에 『법화경』이 있었다고 하고, 이 때 혜자가 근거로 삼은 것은 아마도 『정법화경』인 것으로 보고¹¹⁾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동아시아에 널리 배포된 경전 중 하나가 『법화경』이며, 특히 『정법화경』 또는 『묘법연화경』은 7세기를 전후하여 동아시아 삼국, 특히 일본에 큰 영향을 미친 경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려가 여러 대장경을 교감 후 내용 확정을 통해 彫成한 『고려대장경』은 세계 유일의 定本대장경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성 당시의 교감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교정별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권위와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총 30권으로 卷末 刊記에 따르면 고종 33·34년(1247)에 大藏都監에서 판각되었다. 고종 24년(1236)부터 35년(1248)까지 16년간 대장도감과 분사대장도감에서 『고려대장경』이 판각된 점을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막바지에 이르러 편찬되었음을 유추할¹²⁾ 수 있다. 교감은 五敎都僧統인 開泰寺 승려 守其를 비롯하여 學僧·儒佛學知識人들이 적극 참여하였고, 판각은 숙련된 전문가와 新參 각성인 등 81명이 참여한¹³⁾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정별록』에서 다룬 교감 내용을 분류해 보면 문장 탈문을 補足한 것이 20건, 경전의 진위여부, 逸失, 重出, 불필요로 인하여 代替, 削除, 函次移動이 이루어진 것이 16건, 문장의 前後倒錯으로 인한 重寫, 重重寫, 錯重寫를 바로잡은 것이 14건, 문장의 重疊, 내용 또는 권수의 相異, 내용의 錯亂, 역자의 誤謬를 바로잡은 것이 15건, 유통경전이라 그대로 둔 것이 3건이고, 再校勘의 대상으로 11건을 남겨 놓았다¹⁴⁾고 한다. 이러한 교감을 모두 합하면 총 68經 79卷이며 송본과 단본 대장경에 없고 오직 국본에만 등재된 佛典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고려는 국본송본단본의 3국본의 결함을 혁신·통합하여 새로운 국제적 통일 대장경을 창성하려고 한¹⁵⁾ 것으로 본다. 守其를 비롯한 여러 학승들이 방대한 분량의 삼장을 짧은 기간에 교감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일차적으로 그들이 불교교학과 문헌학에 깊은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¹⁶⁾ 그래서 대장경 교감은 불교 문헌에 대한 정리의 발전과 깊은

되어 있다. 김영태(1994)『한국불교 고전명저의 세계』민족사, pp.21-24

10) 이혜성(1986)『팔만대장경』보성문화사, p.148

11) 黃有福·陳景富 지음, 권오철 옮김(1995)『韓中佛敎文化交流史』까치, p.109

12) 오용섭(1999) 앞의 논문, pp.126-128

13) 최연주(2013) 앞의 논문, pp.180-189

14) 강순애(1994) 앞의 논문, pp.112-127

15) 김윤곤(2003) 앞의 논문 참조

16) 채상식(2013) 앞의 논문, p.162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정별록』 권1에는 『決定毘尼經』, 『須摩提經』, 『大集經』, 『大集經』 제59권, 『般舟三昧經』, 『正法華經』의 순으로 교감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결정비니경』은 국·단본에 의해 송본의 前後倒錯과 錯寫 또는 錯重寫를 바로잡았고, 『수마제경』은 문장의 錯亂을 정정한 것으로 단본의 『수마제경』, 鳩摩羅什 譯本이 錯重되어 국·송본의 法護 譯本을 선택하였다. 『대집경』은 三國本중 송본의 오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분황중 유통경전이라서 그대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대집경』 제59권의 교감 과정에서는 단본에 권2가 없기 때문에 『明度經』에 의해 송본의 前後倒錯을 바로 잡는다고 한다. 『반주삼매경』은 東北2本(국단본)에 의해 송본의 중첩을 바로 잡았으며, 『정법화경』은 諸本(국단본)에 의해 송본의 補足, 削除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¹⁷⁾ 이를 정리해 보면 <표 1>¹⁸⁾과 같다.

<표 1> 『교정별록』 권1의 교감 형식

	經名	函	譯者	取本	不取本	교감내용	비고
1	決定毘尼經	服	焯煌	二本	宋本	2本(國丹2本)에 의해 宋本의 앞뒤가 바뀐 내용과 중복부분을 정정함	
2	須摩提經	服	流志	國宋本	丹本	丹本の 구마라집 譯은 착오이고, 國宋2本은 범호 譯이라 했으나 보리지류 譯으로 밝힘	
3	大集經	推	曇無讖			宋本의 오류가 많으나 분황중이 오래 중시한 경(소의경전)이라 그대로 채택함	
4	大集經 제59권	虞	〃	明度經	國宋本	명도경에 의해 宋本의 앞뒤가 바뀐 내용을 바로잡음	
5	般舟三昧經	伐	支婁迦讖	東北二本	宋本	宋本에 없는 16구의 계송 등을 東北2本(國丹)에 의거해 중복부분을 정정함	
6	正法華經	鳳	法護	諸本	宋本	宋本 권6의 결구는 보충하고, 또 범사품은 2중이므로 삭제, 범지품은 별도로 구성함	

『정법화경』은 송본의 오류가 諸本 즉 국본과 단본에 의해 교감·정정되었다. 『교정별록』 권1에 수록된 『정법화경』 교감기 전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7) 강순애(1994) 앞의 논문, pp.263-268

18) <표 1>은 강순애(1994), 오용섭(1999), 김윤곤(2003), 채상식(2013) 앞의 논문 참조.

正法華經 10卷 鳳函

제 6권 初의 藥王菩薩品の 이름과 經의 正文에서, 처음부터 제6품의 初3項에 있는 “모두 一乘으로 돌아간다”까지가 이 宋本중에는 본래 없는데, 지금 諸本에 의거해 덧붙인다. 宋本에는 여기에 法師品の 이름이 있으나 그 다음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삭제한다. 또 모든 藏經本에서는 모두 七寶塔品の 偈頌 후에 있는 文章을 나누어진 것으로 보고 “내가 셀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法 以下로”부터 梵志品이라고 하여 통틀어서 28품으로 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도 또한 그品の 이름을 기록해서 나타낸다. 또 舊本인 宋나라 藏經은 보는 사람을 위해서 다음에 그 문장을 모두 수록한다.

내용의 대강은 송본의 오류를 국본과 단본에 의해 교감·정정하였다는 것이다. 위 교감기는 『정법화경』의 체제 또는 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법화경』은 총 27품으로¹⁹⁾ 나누는데 위 내용은 제10품 藥王菩薩品과 제11품 七寶塔品の 교감에 대한 것이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먼저 송본·국본·단본을 교차 비교해 본 결과 송본에 오류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정법화경』 10권 중 6권 내용 중 일부는 송본에 없어 諸本에 의거해 덧붙이고, 또 송본에는 法師品으로 되어 있으나 뒤의 것과 중복되므로 삭제하였다. 여기서 諸本은 곧 국본과 단본을 의미하므로²⁰⁾ 국본과 단본에 의해 송본의 補足, 削除가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모든 대장경에서 11품의 범지품이 별도로 구성되어 28품으로 구분된 것을 논의하고 있다. 27품 중에서 七寶塔品の 偈頌 이후의 내용을 梵志品이라 하여 28품으로 별도로 구분한 것으로 『정법화경』의 편제 및 체제를 27품으로 보느냐 아니면 28품으로 보느냐 인데 당시 송본은 28품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수록해 두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해 근자에 27품과 28품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그 내용은 ‘『정법화경』은 27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宋元明 三本에는 提婆達多品에 해당하는 부분을 別立하여 범지품이라 이름해서 28품으로 되어 있다’²¹⁾라고 하였다. 본래는 27품이지만 중국 대장경에서는 28품으로 나누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내용상의 첨삭이 아니라 분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으로 『법화경』과 관련하여 각 품을 비교해 보면, 각 품의 이름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만 내용적으로는

19) 제1 光瑞品, 제2 善權品, 제3 應時品, 제4 信樂品, 제5 藥草品, 제6 授聲聞決品, 제7 往古品, 제8 授五百弟子決品, 제9 授阿難羅云決品, 제10 藥王如來品, 제11 七寶塔品, 제12 勸說品, 제13 安行品, 제14 菩薩從地涌出品, 제15 如來現壽品, 제16 御福事品, 제17 勸助品, 제18 歎法師品, 제19 常被輕慢品, 제20 如來神足行品, 제21 藥王菩薩品, 제22 妙吼菩薩品, 제23 光世音普門品, 제24 摠持品, 제25 淨復淨王品, 제26 樂普賢品, 제27 囑累品이다(정승식(1996) 『고려대장경해제』 제3권 고려대장경연구소, pp.1669-1970).

20) 오용섭(1986) 앞의 논문, p.226

21) 이지관(1993) 『韓國佛教所衣經典研究』(사)가산불교문화연구원출판부, pp.342-345

거의 다를 바 없다²²⁾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아마도 『법화경』 3종의 異譯本은 品數는 동일하여도 그 배열순서가 일부 다르고, 내용은 중국에서 增補되었다²³⁾는 지적은 이를 근거로 말한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국본과 단본은 27품으로 편제되어 있었던 것으로, 『정법화경』의 품수는 내용상 크게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내용을 구분하고 배열하느냐에 대한 것으로 이해된다. 『교정별록』의 교감기 내용을 통해 송본은 국본과 단본과 다른 편제나 체제로 구성되었음²⁴⁾ 말해 주고 있고, 27품 또는 28품의 편제 품수 논의는 중국에서 간행된 경전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위의 교감기는 전체적인 내용만 언급하여 교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말미에 ‘舊本인 宋나라 藏經은 보는 사람을 위해서 다음에 그 문장을 모두 수록한다’고 하고 이어 송본 내용을 수록해 두었다. 그래서 수록된 송본 내용과 『고려대장경』 『정법화경』의 내용을 대조해 보면 어느 부분이 교감되었고, 무엇이 첨삭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제시한 교감기는 『교정별록』 권1에 제14장 11행부터 19행까지 『정법화경』 교감 내용이며, 이후 내용은 송본으로 경전 제목 正法華經藥師王如來品第十을 시작으로 21행부터 제15-19장(마지막 장입)까지 수록되어 있다.²⁵⁾ 그 분량이 많아 일일이 대조하는 것은 번잡하므로 차이점과 주목할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기로 하자.

먼저 권6의 卷首制에 이어 적시된 책명은 法華經과 法花經으로 각각 표기되었는데, 華와 花의 사용은 넓은 의미로 동음이자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내용상의 오류이기보다는 당시 한자음 사용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정자와 약자를 혼동해 쓴 사례는 등(『고려대장경』 『정법화경』; 이하 고려본)-等(『교정별록』에서 언급한 송본; 이하 송본), 眞-眞, 花-華, 尔-爾, 惣-總, 蓋-蓋 등으로²⁶⁾ 구분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활용된 사례이기도 하다. 다음은 약자는 아니지만 글자를 달리 표기한 사례와 행간문구의 착오 등을 조사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²⁷⁾

22) 정승석(1996) 앞의 책, pp.1669-1970

23) 望月信亨, 김진열 역(1995) 『불교경전 성립의 연구』 불교시대사, pp.72-73

24) 이와 관련하여 김윤곤은 『교정별록』 교감내용 분석을 통해 國本이 宋本, 丹本보다 우수한 대장경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인제는 ‘이른바 국본이라 할 수 있는 부인사장 대장경에는 송본과 단본에서 볼 수 없는 우리 고유 불전이 상당히 많이 수록되어 있고, 국본을 저본으로 하여 송본과 단본 대장경이 수정 보완되었던 사례를 근거로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 통일신라 이래로 중화적 북방불교에 오염되지 않은 고승대덕과 서역 구법고승 및 이들의 영향을 직간접으로 받은 학승들이 불전을 번역했다는 김윤곤의 연구 성과가 매우 소중하다’라고 한 바 있다(2005) 「선사(禪師) 공양(兢讓 878-956)의 생애와 대장경(大藏經)」 『한국사연구』 131, p.181.

25) 수록된 송본 내용과 『고려대장경』 『정법화경』 제6권을 대조해 본 결과, 卷首題 다음 줄 즉 본문 제1장 1행 正法華經藥師王如來品第十부터 제6장 3행까지였다.

26) 그 밖에 安, 從, 所, 歸, 寧, 處, 供, 超, 來, 奇, 若, 藏 등이 있다.

27) 고려본과 송본의 비교는 영인본 『高麗大藏經』 제9권에 수록된 『正法花經』 6권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2> 고려본과 송본의 대교

張次	行數	송본	고려본
1	4	不周徧未嘗	不周徧未曾
	7	以香華伎樂供養	以花香伎樂供養
	14-15	千子端正勇猛有七	千子端政勇猛有七
	17	供養藥王如來具五中劫	供養藥王如來具足五中劫
	19	其千子吾以供	其千子吾已供
2	2	安彼第一太子名曰	安彼一太子名曰
	5	語之曰旃	語之曰今旃
	9	稽首於地白藥王如來	稽首于地白藥王如來
	10-11	世尊告曰法供養	世尊告曰法之供養
	17	離諸往見覺了	離諸法見覺了
	18-19	非身無人壽非命志空無相無願之法	無人非壽非命志空無願無想之法
	20	處於道場	嚮*于道場
3	22	顯布菩薩諸行	顯布諸菩薩行
	13	見人怙恃眞諦	見人恃怙眞諦
	15	除觀十二緣	除屏觀十二緣
	21	時佛知心念知其	時佛知心然其
4	23	出家爲道當精	出家爲道常精
	1	諸德本不人成就	諸德本不之成就
	5-6	千億人志於無上	千億人善發無上
	9	等正覺是也	等正覺是

- 2장 20행의 ‘嚮*’는 ‘處’의 古字임.

<표 2>를 통해 20개 항목에서 글자 수정, 글자 첨삭, 문장 前後倒錯 등이 조사되었다. 글자가 수정된 것은 제1장 4행 不周徧未嘗에서 徧과 曾, 7행 以香華伎樂供養에서 香華를 花香로 글자의 순서를 바꾸면서 華와 花로 수정하였다. 14-15행의 千子端正勇猛有七에서 正으로, 19행의 其千子吾以供에서 已로 각각 수정하였다. 특히 제2장 18-19행 非身無人壽非命志空無相無願之法은 無人非壽非命志空無願無想之法로 6글자, 제3장의 21행에서는 時佛知心念知其

동국대 역경원편(1986)『高麗大藏經』권9).

에서 念知를 然으로 각각 수정하였다. 그 밖에 제2장 5행 語之曰今旻, 10-11행 世尊告曰法之供養, 제3장 15행 除屏觀十二緣이 수정되어 총 12건이다.

글자가 첨가된 사례는 4건이 있는데, 제1장 17행 供養藥王如來具五中劫에서 具五사이에 足을, 제2장 5행 語之曰旻에서 旻이, 10-11행 世尊告曰法供養에서 之, 제3장 15행 除觀十二緣에서 屏이 각각 첨가되었다. 글자 삭제는 2건으로 제2장 2행 安彼第一太子名曰에서 第를, 제4장 9행 等正覺是也에서 也를 삭제하였다. 그리고 송본의 문장 前後倒錯는 3건으로 2장 18-19행 非身無人壽非命志空無相無願之法은 無人非壽非命志空無願無想之法으로, 22행 顯布菩薩諸行이 顯布諸菩薩行으로, 제3장 13행 見人恃怙眞諦를 見人怙恃眞諦로 바로 잡았다. 특히 제3장 21행의 경우 時佛知心然其가 時佛知心念知其로 念知를 然으로 정정한 것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고려대장경』 교정자들이 송본을 바탕으로 국본과 단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교정 후 정정 반영한 것으로 추론된다.

『교정별록』에서 교감한 내용은 번역자권수주석제목을 검토하고 경전 자체의 진위를 판별한 것, 누락된 경전을 보충하고 헛갈린 경전을 바로 잡은 것, 글자·행간·문구의 착오를 바로 잡은 것²⁸⁾으로 그 내용을 대조해 보면 당시의 교감 실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송본에 수록된 『정법화경』의 語順과 글자의 결락, 그리고 첨삭 등과 같은 오자·내지 탈자, 오류에 대해 아주 정밀하게 교감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 상론하겠지만 일부 내용은 송본의 오류를 바로 잡아 『고려대장경』에 수록하였던 것이다.

3. 韓·中·日의 『正法華經』 對校

동아시아 한·중·일 삼국은 漢子, 유교, 불교라는 매개체로 각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해 왔으며, 그 핵심을 불교로 보기도²⁹⁾ 한다. 삼국이 공유하였던 전근대 불교는 기원전 1세기 인도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전래된 것으로, 기원후 4세기 고구려와 백제가 각각 수용하였다. 곧 신라로 전달되면서 한반도의 삼국은 불교를 국교로 삼았다. 이어 6세기 백제 성왕때 노리사치계가 일본에 불교를 전했다. 이 같은 불교의 전래과정에서 다양한 불교 경전도 유사한 경로를 통해 들어왔을 것이다. 산스크리트, 팔리어 등으로 구성된 불경이 중국 漢代 이후 漢譯된 이래로 한반도에 수시로 전래되었다. 승려들의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28) 채상식(2013) 앞의 논문, p.22

29) 석길암(2010) 『불교, 동아시아를 만나다』 불광출판사, pp.27-29

경우도 있었지만, 국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입수하기도 하였다. 한편 일본에 전해진 불경은 한반도를 거쳐 간 경우도 있지만 중국에서 직접 전래된 것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삼국의 불교 교류는 다른 문화 또는 분야의 교류와 같이 일반적이고 대동소이하다 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교류에 있어서 대장경 간행은 그러한 내용을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다.³⁰⁾

각 시대별로 중국, 한국, 일본 순으로 대장경을 간행한 바 있다. 중국에서 간행된 본을 저본으로 한반도에서 간행하였고, 이를 저본으로 일본이 간행하였을 것이다. 여러 대장경이 간행되었으나 현존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즉 12세기 세계 최초의 목판대장경인 『개보칙판대장경』은 금나라에 의해, 곧 이어 간행된 부인사장 『고려대장경』(소위 초조대장경)도 몽고와 전쟁 중에 각각 소실되었다. 거란대장경도 소실되어 이들 대장경은 극소수만 현존하고 있다. 고려는 對蒙抗爭 중에 『고려대장경』(소위 재조대장경)을 조성하였고, 그 이후 대장경은 조성되지 않았으며 지금은 경남 합천 해인사에 보관 중이다. 중국은 원나라에서도 조성되었으며, 명나라 건국 직후 『영락남장』과 『영락북장』을 조성한 이후 여러 차례 대장경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영락북장』만큼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완벽하게 대장경 조성을 하지 못하였고, 20세기 초에 『대정신수대장경』을 근대 활자로 간행하였다. 따라서 현존하는 『고려대장경』, 『영락북장』, 『대정신수대장경』 중 가장 먼저 조성된 것은 고려 고종 24년(1236)부터 16년간 판각된 『고려대장경』이다. 한편 『영락북장』은 北藏이라고도 하는데 명나라 成祖永樂帝가 兩親(太祖와 馬后) 追福을 위해 鑄造를 發願하였다. 성조 8년(1410)에 칙령을 내렸고 17년(1419)에 조판을 시작하여 영종 5년(正統 5, 1440)에 완성되었다.³¹⁾ 당시 판각에 道成, 一如 등이 참여하였고, 총 636函 6,361卷으로 編制되었다. 『영락북장』이 세계 최초 목판으로 조성된 10세기의 『開寶勅板』과 11세기에 거란에 의해 조성된 단본이 각각 亡失된 이후, 『고려대장경』보다 약 1백년 뒤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영락북장』은 국본·송본·단본 등을 통해 교감된 『고려대장경』 내용을 어느 정도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정신수대장경』은 正編 55권 續編 30권, 別卷 15권의 全 10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正編은 여러 경전을 24부로 나누어 經律論의 三藏과 중국에서 편찬된 불교 관계 서적들을 수록하였고, 續編은 續經疏續律疏 등 7부로 분류하되 주로 일본에서 편찬된 것을 수록하였다.³²⁾ 이 사업은 제국주의 정책에 적극 호응하면서 동양의 지도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불교학

30) 동아시아에서 조선-일본-류큐의 대장경 교류는 다음의 논고가 참조된다. 최연주(2014)『朝鮮과 琉球의 交流樣相과 『고려대장경』』『일본근대학연구』45

31) 野上俊靜 外 共著, 양은용 역(1994)『中國佛教敎概說』원광대출판부, p.188

자인 高楠順次郎이 그 사업을 주도하였고, 이에 渡邊海旭, 小野玄妙 등이 수 차례 편찬 회의를 하였다. 일본 皇室의 협조와 관심 속에 大正 12년(1923)에 시작하여 昭和 9년(1934)까지 진행된 국가 차원의 사업이다. 대정 12년 4월에 大正一切經刊行會가 조직되어 智増上寺 閼藏亭에서 고려 해인사판을 저본으로 하여 南宋 思溪法寶寺版, 元 大普寧寺版, 明萬曆版 등을 對校하였다. 1924년 5월에서 이듬해 12월에 20권이 간행되고, 나머지 80권은 1926년 1월부터 1934년 11월 사이에 간행되었다. 여러 종의 대장경과 다양한 불교문헌을 바탕으로 간행된 『대정신수대장경』의 저본은 『고려대장경』임을³²⁾ 재론할 필요가 없다.

다음은 각 대장경에서 『정법화경』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정별록』의 교감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자. 『교정별록』에 따르면 교감의 텍스트(Text)가 된 국본과 단본, 그리고 내용 일부가 잘 못되어 삭제된 송본 등 3종의 『정법화경』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송본 내용을 토대로 諸本과 비교해 『정법화경』 권6 藥王菩薩品 내용의 오류를 바로 잡은 후 별도로 『교정별록』에 수록해 놓았고, 수정 이전의 약왕보살품은 삭제 폐기하지 않고 별도로 移記하여 두었던 것이다. 訂正된 약왕보살품은 『고려대장경』(이하 고려본)에 편제 수록되었고, 이것이 후일 『영락북장』(이하 영락본)과 『대정신수대장경』(이하 대정본) 등에 수록되었다. 『정법화경』은 『고려대장경』에 K-117, 『영락북장』에 제36책, 『대정신수대장경』에 T-263로 각각 편제되어 있다. 그렇다면 한·중·일 각 대장경에는 『정법화경』 권6의 약왕보살품이 동일한 내용으로 수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각각 對校해 본 결과 일부 내용은 차이가 있다.

32) 장동익(2004)『日本古中世 高麗資料 研究』서울대출판부, p.428

33) 윤기엽(2007)「일본 大正時代 佛教界의 編纂事業『대정신수대장경』의 편찬을 중심으로」『한국불교학』48 및 (2008)「다이쇼시대 일본 불교계의 대장경(大藏經) 편찬사업」『근대동아시아의 불교학』동국대학교출판부

<표 3> 한·중·일의 『정법화경』 비교

張次	行數	고려본	영락본	대정본
1	冊名	正法花經	正法華經	正法花經
	4	不周遍未曾	不周徧未曾	不周遍未曾
	7	花香伎樂供養	花香妓樂供養	花香伎樂供養
	9	尔時有佛	爾時有佛	爾時有佛
	14	有十二億	有千二億	有十二億
	16	端政勇猛---降伏怨敵	端正勇猛---降伏怨敵	端政勇猛---降伏怨敵
2	2	善蓋閑居	善蓋閑居	善蓋閑居
	14	中以摠持	中以總持	中以總持
	16	法忍開入正典	法忍關入正典	法忍開入正典
3	2	而爲咨嗟	而爲咨嗟	而爲諮嗟
	5	開道宣布闡	開導宣布闡	開道宣布闡
	8	典籍而順反復	典籍而順反覆	典籍而順反復

-. 대정본의 ∨표시는 異體字에 대한 정보를 注로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

<표 3>은 각 대장경을 서로 비교하여 全文 전부를 수록 대조할 수 없어 내용상 상이한 부분만 제시하였다.³⁴⁾ 제시된 12건 이외에도 11건이 더 있으나, 대부분 略字, 同音異字 등으로 중복된 내용이다. 예를 들면 제1장에서 책명 正法花經, 9행 尔時有佛, 제2장 14행 中以摠持 등도 같은 사례인데 이 같은 略字의 사용을 오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³⁵⁾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약자의 사용 빈도에 따라 3본의 내용이 약간 다르지만, 고려본과 대정본은 거의 동일하다. 다만 제1장 9행 尔時有佛과 제2장 14행 中以摠持, 제3장 2행 而爲咨嗟 정도가 다른 데, 대정본이 활자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편찬과정에서 파생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고려본과 영락본을 비교해 보면 제1장 4행 不周遍未曾, 7행 花香伎樂供養, 14행 有十二億, 제2장 2행 善蓋閑居, 14행 中以摠持, 16행 法忍開入正典, 제3장 5행 開道宣布闡, 8행 典籍而順

34) 『영락북장』은 趙朴初 名譽主編(2000)『영락북장』 권35, 北京, 綫裝書局, 『대정신수대장경』은 <http://21dtk.l.u-tokyo.ac.jp/SAT/> 를 각각 기본 텍스트로 삼았다.

35) 대정본에서는 이와 관련된 항목에 각주형식으로 각각 글자의 차이점을 소개해 놓았다.

反復 등이 각각 다르다. 이 역시도 略字의 사용에 따라 구별되는 것으로 徧과 編, 伎와 妓는 동일 글자로, 閑과 閒, 道와 導, 復와 覆는 훈은 다르나 음은 같으므로 이 역시 동일 글자로 보아도 된다.³⁶⁾ 그런데 제1장 14행 有十二億에서 영락본은 有千二億으로 十과 千, 제2장 16행 法忍開入正典에서 開과 關은 음과 훈이 다른 글자이다. 특히 제1장 16행의 경우 고려본에는 端政勇猛—降伏怨敵라고 하였으나, 영락본에서는 端正勇猛—降伏怨敵에서 政과 正이 구분되고 있다. 이는 앞서 송본과의 대조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영락본은 고려본과 내용상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마지막 글자인 敵는 다소 복잡한데, 고려본에는 敵으로 영락본과 대정본에는 敵³⁷⁾이다. 『교정별록』에는 適+支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글자는 3본이 欠, 欠, 支으로 각각 구분된다. 『교정별록』 내용을 근거로 유추해 본다면 欠와 支는 같은 ‘칠 북’이므로 敵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하지만 내용상의 오류인지 아니면 필사 내지는 판각과정에서의 잘 못인지는 구별할 수 없으며, 심각한 오류로 단정 지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제1장 14행의 有十二億과 영락본의 有千二億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고려본과 송본에서는 十으로 되어 있으나 영락본에서만 千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오류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물론 경전 내용상에 있어서 결정적인 오류를 범하게 하거나, 잘 못된 것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고려본이 전적으로 옳다고 볼 수도 없다. 『정법화경』의 漢譯과정에서 생긴 오류를 그대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守其를 비롯한 校勘者들이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교정별록』에서 조사된 송본의 오류가 전체의 약 82%에 이르고 있어 결함과 오류가 가장 많다³⁸⁾는 사실에서 송본 자체의 결함이나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송본의 오류내지 착란에 의한 내용이 영락본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

교감이란 서술되거나 기록된 사료를 바탕으로 본래의 모습을 복원하는 것이다³⁹⁾라고 한다. 그래서 송본에 의한 오류와 착란으로 잘 못된 부분을 복원하고자 『고려대장경』 교감자들은 당시 아주 엄격하게 교감하였다. 『정법화경』의 오류를 올바르게 복원한 후 유통시키고, 잘 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교정별록』에 철저히 기록해 두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고려대장경』이 동아시아 표준대장경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표 2>와 <표 3>의 내용을

36) 본고에서 검토한 尙는 爾의 略字, 摠과 總은 同字이다. 嗟와 譟는 음과 훈이 각기 다르지만 差가 기본이라는 점에서 同字로 보고 있다. 각각의 한자에 대한 비교는 국내에서 간행된 있는 각종 字典 및 玉篇, 諸橋轍次, 『漢和大辭典』(昭和43年) 大修館書店(日本) 등을 활용하여 대조하였다.

37) 참고로 대정본에서는 이를 각주로 고려본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38) 김윤근(2003) 앞의 논문, p.64

39) 倪其心 지음, 신승운 외 옮김(2013) 『교감학개론』 한국고전번역원, p.23

종합하면 송본의 결함이나 오류를 정정한 고려본 내용이 영락본에도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에서 검토한 글자 오류, 글자 첨삭, 문장 前後倒錯 등을 거쳐 내용이 수정 및 정정된 것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락본과 대정본은 고려본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 내용도 이에 준하여 편제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결국 『고려대장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守其를 비롯한 교감자들이 송본을 비롯한 각 본의 오류를 찾아 그 내용을 바로 잡고, 잘못된 내용을 『교정별록』에 수록해 두었기 때문에 후일 『고려대장경』을 底本으로 간행된 『영락북장』, 『대정신수대장경』에서 큰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4. 結論

본고는 『교정별록』 권1에서 교감한 『正法華經』 권6에 대한 교감 내용을 주로 검토해 보았다. 40) 그 내용을 요약하면, 총 30권으로 구성된 『교정별록』에는 문장의 탈문을 보충한 것, 경전의 진위여부, 逸失, 重出, 불필요로 인하여 代替, 削除, 函次移動이 이루어진 것, 문장의 前後倒錯으로 인한 重寫, 重重寫, 錯重寫를 바로잡은 것, 문장의 重疊, 내용 또는 권수의 相異, 내용의 錯亂, 역자의 誤謬를 바로잡은 것, 유통경전이라 그대로 둔 것, 再校勘의 대상 등에 대해 교감하였다.

『고려대장경』의 교감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 『교정별록』 권1에 수록된 『정법화경』 교감기를 대상으로 삼았다. 동아시아에 널리 배포된 경전 중 하나가 『법화경』이며, 특히 『정법화경』 또는 『묘법연화경』은 7세기를 전후하여 삼국에 큰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교감의 주요 내용은 제10품의 藥王菩薩品과 제11품의 七寶塔品에 대한 것이다. 전자는 송본국본단본을 서로 비교해 송본에 오류가 있음을 밝혔고, 후자는 모든 대장경에서 11품의 범지품이 별도로 구성되어 28품으로 구분된 것을 논의하면서 송본은 28품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수록해 둔다는

40) 『교정별록』 권1의 내용과 각 본을 대조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면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과제를 제안해 본다. 『교정별록』에 수록된 각 본의 내용상 오류에 대한 검증 특히 본고에서 검토한 『정법화경』의 原經典 내용을 토대로 내용상 해석을 통해 상호 비교되어야 올바르게 정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불교고리 내지 경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므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검토는 하지 않았다. 다음 방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교정별록』을 개별 경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개별 경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내용을 세밀하게 고찰하지 않고서는 『교정별록』에서 다룬 의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정 학문이나 개인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역사학, 불교학, 문헌학, 동아시아 관련 분야 등이 참여하는 학제 간 연구에 의해 진행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인접 학문 간의 연구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를 기대한다.

요지이다. 여기서 후자의 내용인 『정법화경』 27품 또는 28품 체제는 내용상의 구분이 아니라 편제에 대한 것으로 각 본에서 어떻게 배열하는가 하는 순서에 대한 논의로 이해된다. 그리고 전자인 송본 오류에 대해 『교정별록』에 수록된 송본 내용과 『고려대장경』에 수록된 『정법화경』의 해당 부분을 상호 대교해 보았다. 그 이유는 『교정별록』에 수록된 송본 『정법화경』이 현재 유일한 오류본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교감 정정한 것이 『고려대장경』 『정법화경』이기 때문이다. 두 본을 상호 대교해 보면 어떤 부분이 교감되었는지, 당시 교감자들이 오류와 착란을 어떻게 정정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20개 항목에서 글자 수정, 글자 침삭, 문장 前後倒錯 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송본에 수록된 『정법화경』의 語順과 글자의 결락, 그리고 침삭 등과 같은 오자내지 탈자, 오류에 대해 아주 정밀하게 교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교감을 거쳐 조성된 『고려대장경』 내용이 後代에 간행된 대장경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영락북장』과 『대정신수대장경』을 통해 살펴보았다. 3본을 대교한 결과 총 23개 항목이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고, 약자 및 이체자의 사용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다만 有十二億에서 十과 千, 法忍開入正典의 開과 關, 端政勇猛……降伏怨敵의 政과 正 그리고 敵과 敵이 달랐다. 이는 고려본과 영락본에서만 조사되었고 대정본에서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차이점이 守其를 비롯한 校勘者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내용일 수도 있고, 경전 내용에서 오류인지 아니면 『정법화경』의 漢譯과정에서 생긴 오류일 수도 있다. 『고려대장경』 조성과정에서 치밀하게 교감하면서 글자 오류, 침삭, 문장 前後倒錯 등이 수정 및 정정되었다. 그래서 착란과 결함, 그리고 오류가 가장 많은 송본의 내용이 영락본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려대장경』을 底本으로 간행한 『영락북장』, 『대정신수대장경』은 큰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교감은 서술되거나 기록된 사료를 바탕으로 본래의 모습을 복원하는 것이라 한다면 당시 교감자들은 오류와 착란에 의해 기록 유통되던 『정법화경』의 오류를 올바르게 복원하여 유통시키고, 잘 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교정별록』에 기록해 둔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고려대장경』이 동아시아 표준대장경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參考文獻】

<사료>

『高麗大藏經』,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永樂北藏』, 『大正新修大藏經』

<단행본 및 논문>

- 김영태(1994)『한국불교 고전명저의 세계』민족사
 김윤곤(2002)『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불교시대사
 석길암(2010)『불교, 동아시아를 만나다』불광출판사
 이지관(1993)『韓國佛教所衣經典研究』사가산불교문화연구위원회출판부
 이해성(1986)『팔만대장경』보성문화사
 장동익(2004)『日本古中世 高麗資料 研究』서울대출판부
 정승석(1996)『고려대장경해제』제3권, 고려대장경연구소
 최연주(2006)『고려대장경연구』경인문화사
 金岡秀友 편안중철 옮김(1992)『대승불교총설』교시대사
 中村 元 편, 박희준 옮김(1993)『불교경전 산책』민족사
 野上俊靜 外 共著, 양은용 역(1994)『中國佛教史概說』원광대출판부
 望月信亨, 김진열 역(1995)『불교경전 성립의 연구』불교시대사
 미즈노 고젠지음, 이미령옮김(1996)『경전의 성립과 전개』시공사
 塚本啓祥 著, 이정수 역(2010)『법화경의 성립과 배경』운주사
 渡辺昭宏 著, 지성 역(2005)『경 이야기』우리출판사
 『漢和大辭典』(昭和43年 大修館書店 간행본)
 중국사회과학원세계종교연구소 불교연구실 편, 남현옥 옮김(1993)『중국불교와 불교문화』우리출판사
 黃有福·陳景富 지음, 권오철 옮김(1995)『韓中佛教文化交流史』까치
 倪其心 지음·신승은 외 옮김(2013)『교감학개론』한국고전번역원
 강순애(1994)『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의 분석을 통해 본 초조 및 재조대장경의 변용에 관한 연구』『한국비블리아』7
 _____(2000)『高麗大藏經校正別錄의 學術的 意義』『서지학연구』20
 김윤곤(2003)『고려 ‘國本’대장경의 혁신과 그 배경』『민족문화논총』27
 배상현(1997)『高麗國新羅大藏校正別錄』과 守其』『민족문화논총』17
 오용섭(1986)『高麗國新羅大藏校正別錄 研究』『서지학연구』창간호
 _____(1999)『校正別錄의 完成과 入藏에 對한 考察』『서지학연구』18
 윤기엽(2007)『일본 大正時代 佛教界의 編纂事業-『대정신수대장경』의 편찬을 중심으로』『한국불교학』48
 _____(2008)『다이쇼시대 일본 불교계의 대장경(大藏經) 편찬사업』『근대동아시아의 불교학』동국대학교출판부
 이인제(2005)『선사(禪師) 궁양(兢讓 878-956)의 생애와 대장경(大藏經)』『한국사연구』131
 채상식(2013)『高麗國新羅大藏校正別錄』의 편찬과 자료적 가치』『한국민족문화』46
 최연주(2008)『高麗大藏經』의 韓日交流와 인식추이』『일본근대학연구』19
 _____(2013)『刻成人을 통해 본 高麗國新羅大藏校正別錄』彫成』『동아시아불교문화』15
 _____(2014)『朝鮮과 琉球의 交流樣相과 高麗대장경』『일본근대학연구』45
 _____(2015)『고려시대 金剛般若波羅密經』彫成 현황과 書誌의 성격』『석당논총』61

논문투고일 : 2015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10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0월 19일

 <要旨>

韓·中·日의 『正法華經』과 『校正別錄』

『고려대장경』을 彫成할 당시의 교감 내용을 수록한 책이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이다. 현존하는 최고의 교감본(校勘本)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고는 『교정별록』 중 권1의 일부를 분석한 것이다. 그 중에서 『정법화경』 내용을 각 본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20개 항목에서 글자 수정, 글자 첨삭, 문장 前後倒錯 등이 조사되었다. 『정법화경』의 語順과 글자의 결락, 그리고 첨삭 등과 같은 誤字·내지 脫字, 誤謬에 대해 아주 정밀하게 교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교감을 거쳐 조성된 『고려대장경』 내용과 『영락북장』과 『대정신수대장경』을 서로 비교해 보았다. 3본을 대교한 결과 총 23개 항목이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약자 및 이체자의 사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고려대장경』 조성과정에서 치밀하게 교감하면서 글자 오류, 첨삭, 문장 前後倒錯 등이 수정 및 정정되었다. 그래서 착란, 결함과 오류가 가장 많은 송본의 내용이 영락본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교감은 서술되거나 기록된 사료를 바탕으로 본래의 모습을 복원하는 것이라 한다면 당시 교감자들은 오류와 착란에 의해 기록 유통되던 『정법화경』의 오류를 올바르게 복원하여 유통시키고, 잘 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교정별록』에 기록해 둔 것이다.

‘Saddharmapu’ Sutra of the Korea · China · Japan and ‘kyochongbyollock’

‘Koryokukshinjodaechangkyochongbyollock(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is the best book extant calibration. As a correction to the information at the time of the Tripitaka Koreana wood carving book it is right for the book.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first one consisting of ‘Koryokukshinjodaechangkyochongbyollock’. Mainly we compared each of the correction contents of the Saddharmapu Sutra information. As a result, the contents of more than 20 different places and Mainly modify the text, adding, deleting, and was the most error, etc. sentence. Every sentence order and the letter of the scriptures, and was found to be very precise calibration for deletion and addition as part of the error. Next we compared each of the Tripitaka Koreana and Yeounglak bukjang, Taisyou shinsyudaizoukyou. Compared to colonoscopy of the Three Kingdoms were a total of 23 entries this investigation to the other,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some characters used.

The contents of the Tripitaka Koreana is the most accurate.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calibration had to be exact. So errors were minimized in each of the Tripitaka published later. Tripitaka Koreana is just to check and correct the error, the content of which was produced as a text. You can confirm these details is the correction ‘Koryokukshinjodaechangkyochongbyollock’.